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95 예수사랑 큰잔치 앞으로 한 달

오늘은 총력 전도주일, 전 교인이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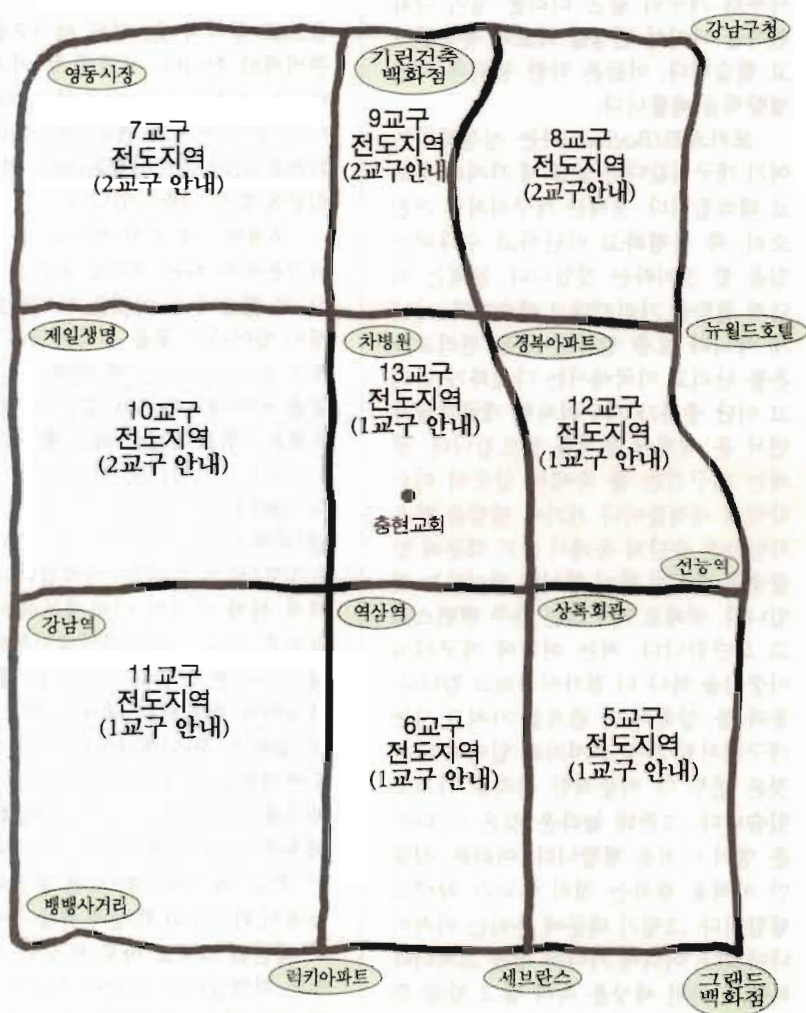
오늘 연합교구 모임 후 모두가 교회주변 1·2교구 지역으로, 3·4교구는 자체 지역 전도
표어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결과 나와, 입선작들은 전시해

'95 예수사랑 큰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는 겉보다는 속으로, 외형보다는 내적 열매로 맺어져 가는 기분이다.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모했던 표어와 지난 토요일(5월 6일)에 실시한 그림 그리기 대회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각 연합전도회에서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전도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요한전도회, 베드로전도회가 이미 실시했고, 바울전도회에서는 오는 5월 27일(토) 오후 2시부터 태신자초청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마리아, 루디아, 에스더, 한나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5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전도세미나를 열게 된다. 또한 각 교구에서도 전도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각 교구는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가 연합한 가운데 각 교구 특색에 맞는 전도법으로 전도활동에 임하고 있다.

예수사랑 큰잔치가 해를 거듭하면서 각 지회와 각 교구의 자발적인 전도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편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위원회는 오늘을 총력전도주일로 정하고 교회주변 1·2·3·4교구에 대한 총력전도를 펼치기로 했다. 오늘 I, II, III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IV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연합교구 모임을 마친 후 모두가 일제히 전도에 임하게 된다.



<총력전도 교구별 할당을 위한 교회주변 약도>

1교구의 "찾아오자 잃은 양떼 보살피자"라는 표어로 결정됐고 우수상은 한용관 목사(제3교구 지도) "기도하고 전도하여 예수사랑 실천하자", 가작은 이주영 학생(제3-2교구)의 "전하자 예수사랑 모이자 충현교회"로 결정됐다.

또한 5월 6일에 실시된 그림그리기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에 초등5부의 이성은, 우수상에 최유미(유치부), 장서영(초등1부), 홍은주(초등2부), 이혜원(초등3부), 김웅(초등6부), 김현경(중등2부), 가작에 최은미, 전세안(유아부), 이수진, 박종혁(유치부), 이지윤, 김은혜(초등1부), 이상미, 박종민(초등2부), 조은실(초등3부), 김지원(초등4부), 천한나, 김준규(초등5부), 이성훈(고등부)으로 결정됐다.

입선작들은 본당 1층 전시실에서 전시하게 된다.

시상은 5월 21일(주일) 예수사랑 큰잔치 헌신예배시에 할 예정이다.

태신자에게 두 번째 편지발송

금주는 지난 주일에 이어 태신자에게 두 번째 편지를 발송한다. 이 편지는 간사를 통하여 각 구역에 배부된 편지를 각 개인이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일이다. 다음 주일(5월 21일)과 5월 28일 주일에는 신자에게 초청장을 보내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된다.

다음 주일 월요일(5월 21일)부터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가 1주간 계속되고 그 다음 주는 초청전도집회(6월 7일-9일)로 이어진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기쁨으로 거두는 일이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교구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1교구 전체모임

제1교구는 5월 18일(목) 오후 7시 선교관 지하1층 만나홀에서 제1교구 전체모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이미 작성한 태신자와 온 교구 식구들이 모여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점검과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모이게 된다.

제7교구 찬송가 부르기대회

제7교구는 5월 21일(주일) 교구 모임 시간에 태신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가져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전체가 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5월 20일 잠실주경기장에서 모입니다!!

'95 세계선교대회(GCOWE) 하이라이트

5월 20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오후 4시부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

'95 세계선교대회(GCOWE)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지구촌 규모의 선교헌신대회가 5월 20일(토) 오후 4시부터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세계에서 온 4,500명의 대표들과 전국의 대학생, 교수, 신자 등 10여만 명이 참가하게 되는 이날의 모임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가 차세기의 세계선교전략회의이기에 각 분과별, 대륙별 등 대표들의 회의가 주종을 이루지만 5월 20일(토) 대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다.

이날은 이랜드와 할렐루야 축구단의 시범경기, 국내 및 세계적 복음성가 가수 초청 라이브 가스펠 콘서트, "두란노 경배와찬양"과 함께하는 찬양축제, 217개국 4,662명의 국제참가자들의 입장식, 세계선교와 한국 교회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멀티비전 상영, 메시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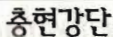
이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 올까말까한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석하면 기대 이상의 은혜와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3·4교구 지역은 3·4교구 구역식구들이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나머지 교구가 1·2교구 지역으로 흠어져 2인 1조가 되어 축조전도 및 노방전도를 펼칠 계획이다.

각 교구는 1·2교구의 안내를 받아 해당지역에서 전도활동을 하게 된다. 1인당 전도지 10매 이상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전도를 한 후 교회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계속적인 전도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전도활동을 통해 모두가 전도에 참여해 보고 교회전체가 전도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찾아오자 잃은 양떼 보살피자"라는 표어

지난 4월 한 달 동안 공모한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표어는 총 69편이 응모하였다. 최우수작은 박철구 집사(제7-



(계 16:10-21)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소
망,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잃
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어떤 재앙이 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절재앙이든,
나팔재앙이든, 어떤 재앙이든 간에 한가
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
질 줄로 믿습니다.

* 특별기고 ① *

“우울하고 힘이 없는 생활에서 탈피” 33%

교회적인 특별한 배려와 관심 요구돼

충현교회 장년1부 대상 부부생활에 대한 앙케이트서 밝혀져

이 한 수

(목사, 장년1부 지도, 충신대학원 신약학 교수)

교회학교 장년1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5월 27일(토) “부부생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장년1부에 출석하는 부부들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원고는 그 결과를 수치적인 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수치가 충현교회 40대 부부를 모두 대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한 모든 가정들이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기에 이에 게재하여 함께 나누려고 한다. 원고 분량 관계로 3회에 나누어 게재 한다. (편집자 주)

설문조사의 성격과 목적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현대사회의 거친 세속주의 물결의 풍랑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오늘날 가정의 근본이 되는 부부 관계가 도처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충현교회 장년1부에서는 5월에 있을 ‘부부생활 세미나’에 즈음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생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밝힐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앙케이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15매의 설문지를 돌렸으나 실제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은 남자 69명, 여자 139명이었다. (총 응답자 208명).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8문항으로 분류될 수 있고 39개의 개별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집계하고 분석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리스도인의 부부생활의 현실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드러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 질문 자체의 성격에 따라 어떤 것들은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들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다. 또 다른 질문들은 남, 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되는 질문들도 있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는 208명이지만 개별 질문의 성격에 따라 응답자의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데 조심해야만 하였다.

금번에 장년1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40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은 중년층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40대 부부들의 삶이 견고하거나 부실하다는 것은 인간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허리가 견고하다거나 부실하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0대는 교회내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며 어떤 의미에서 충현교회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금번 앙케이트 조사는 충현교회의 평신도들의 중요한 단면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금번 설문조사는 충현교회 40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위하는 부부생활의 현실적 상태를 보다 심층적인 목적적 시야에서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를 성경적으로 진단하고 그 대안들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응답자에 대한 기초조사

설문1(본인의 성별)

앞서 이미 밝힌 대로 금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장년1부에 현재 매주 평균 출석하는 320명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208명인데, 성별로 분류하면 여자가 139명이고 남자 69명이다.

설문2(본인의 생활정도)

본인의 생활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총 응답자는 199명이었는데 자신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답변하신 분이 10명(5%), 서민층에 속한다고 답변하신 분이 79명(40%), 중산층에 속한다고 답변하신 분이 104명(52%), 상류층에 속한다고 답변하신 분이 6명(3%)이었다. 이것은 충현교회 장년1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자신들을 중산층 아니면 서민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3(신앙생활의 연한)

본인의 신앙생활의 연한을 묻는 질문에서 총 응답자는 198명인데, 자신의 신앙생활 연한이 1~5년 되었다고 답변하신 분이 26명(13%), 6~10년 되었다고 답변하신 분이 27명(14%), 11~15년 되었다고 답변하신 분이 61명(31%), 16년 이상 되었다고 답변하신 분이 84명(42%)이었다. 이것은 충현교회 장년1부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신앙생활을 상대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부부의 신앙 여부 조사

설문4(부부의 신앙여부)

응답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남자분들의 총 응답자는 69명이고 여자분들의 총 응답자는 131명이었다. 남자 응답자들 중에서 본인의 아내가 신자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68명(99%)였고, 여자 응답자들 중에서 본인의 남편이 신자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113명(86%)이었다. 남자 응답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믿는 아내를 두고 있는 반면에 여자들의 경우에는 안 믿는 남편을 두고 있는 분들이 18명(14%)에 해당하였다. 충현교회 장년1부의 과제는 혼자 예수를 믿는 여자분들의 남편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5(불신 반력자의 종교)

응답자의 남편 또는 아내가 불신자일 경우 어느 종교를 믿느냐는 질문에서 총 응답자 30명중 무신론자는 14명(47%), 불교는 6명(20%), 유교는 5명(17%), 무속 종교는 1명(3%), 기타는 4명(13%) 등이었다. 따라서 장년1부에 나오는 성도의 불신 남편이나 아내는 대개 무신론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불교, 유교 순이다.

설문6(불신 반력자의 이해정도)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의 총 응답자는 50명인데, 불신 반력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고 대답한 분은 38명(76%), 이해가 부족하다고 대답하신 분은 12명(24%), 꾀박하다고 하신 분이 2명(4%)이었다. 총 응답자들 가운데는(설문의 내용을 오해해서서) 아마도 부부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분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체로 불신 남편들이 잘 이해하거나 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불신 남편들이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남편과 아내의 인격적 관계

설문7(원만한 대화 여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 응답자는 208명이었고,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신 분은 108명(52%), 대화가 조금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신 분은 86명(41%), 대화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신 분은 14명(7%)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충현교회 장년1부에 참석하시는 40대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원만한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부부들이 원만한 대화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히 대조를 이루는 대목은 남편들은 아내와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1%에 이르는 데 반해서 여자분들은 47%만이 남편과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대체로 여자들이 남편과의 대화에서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계속)

■ 어버이날을 보내고

아들 · 나 · 하나님

김 영 숙

(전도사, 제2·2교구)

언제부터인가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내게는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매년 예쁜 카네이션과 나름대로 최고의 정성을 들여 사랑의 편지를 안겨주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 나는 언제나 조금은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편지와 꽃송이를 받아 들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하곤 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어버이날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일정표를 들여다 보고 있노라니 둘째 경국이가 카네이션 한 송이와 함께 선물에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면서 "엄마, 부부 커피잔을 사고 싶었는데……"라고 말을 얼버무리며 돌아서는 것이었다.

어정쩡해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봉투를 열어보니 마음에 꼭드는 예쁜 블라우스와 함께 예외없이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블라우스를 펴들고 기분이 좋아 나도 모르게 소리 높여 "선물까지 준비하고 웬일이니?" 고마움을 표시하며 편지를 읽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우리 아들 다 자랐구나' 하는 대견함과 동시에 잘 자라나게 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이 쓴 편지의 내용인즉 함께 선물을 고르려던 친구는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 부부커피잔을 사고 있는데 자신은 살 수 없음이 슬펐고, 그 다음 엄마를 생각해 보니 철없는 자신들을 키워오신 엄마가 더 없이 외롭고 힘들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그런 엄마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어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니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가족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하며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할게요"하고 끝을 맺었다.

잘못한 아들의 편지에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다. 아직 철부지로 보아온 아이들이 엄마를 깊이 생각해 주는 배려에 눈물을 흘리면서, 불현듯이 나는 자녀로서의 나 자신과 부모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이와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 나는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며 살아왔을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에게 이런 귀한 사랑과 선물을 받았으니 이번 5월달에는 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일을 찾아보자. 아버지께 정성껏 감사예물도 준비하고 대화의 시간도 더욱 깊게 가지리라 생각해 보다가 문득 나는 잃은 양을 끌어안고,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아들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시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냈다. "이와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7) 그래! 바로 그거야. 예수사랑 큰잔치!

서툴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어 애쓰는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겠지. 그리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길. 그래서 아버지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의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풍성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 확장 되겠지.

어버이날에 아들을 통해 내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진 것같이 나도 자녀된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 보리라. 예수사랑 큰잔치날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어버이날로 정해놓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95 예수사랑 큰잔치

'95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자기 점검표

예수사랑 큰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나는 이 일에 어느 정도의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각자 아래 사항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자.

- 태신자가 있습니까? ()
-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
-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매일 기도합니까? ()
- 태신자용 1차 전도편지를 보냈습니까? ()
- 특별새벽기도회는 언제, 어디서, 몇시에 하는지 아십니까? ()
- 초청전도집회는 언제, 어디서, 몇시에 하는지 아십니까? ()

**찾아오자 잃은 양떼 보살피자 찾은 양떼
기도하고 전도하여 예수사랑 실천하자
전하자 예수 사랑 모이자 충현교회**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주요 일정

- 특별새벽기도회 / 5월 22일(월) ~ 5월 26일(금)
- 초청전도집회 / 6월 7일(수) ~ 6월 9일(금)
- 예수사랑 큰잔치 / 6월 11일(주일) I~V부 예배

-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기도제목 -

-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교회와 개인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 태신자를 바로 정하게 하시고 결실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 모든 전도운동, 기도운동들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9595 95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하여 매일 오후9시부터 5분간 기도합시다. **9595**

바울전도회 연합회 전도잔치

5월 27일(토) 오후 2시 교회 뜰에서

바울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27일(토) 오후 2시 교회 뜰에서 연합회 전도잔치 행사를 갖는다. 50세 이상 남성인들의 모임인 바울전도회는 각 교구 연합으로 태신자들과 회원들이 함께하는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매일 아침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초청하여 친교시간과 베드민턴 경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킬 목적으로 진행된다. 본 전도잔치는 바울전도회 회원들과 그 연령층의 불신자, 미리 접촉한 태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바울전도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도는 물론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다.

임마누엘찬양대에서 작은음악회 개최

5월 27일(토), 오후 6시 30분

임마누엘찬양대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임마누엘 작은음악회가 오는 5월 27일(토) 오후 6시 30분, 봉사관 지하 2층 마르다홀에서 열린다.

이 음악회는 임마누엘찬양대원 중에서 독창, 중창, 기악 등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임마누엘찬양대의 내적 단결과 개별 연습과 발표를 통한 기량향상 등을 기대하며 열린다.

이봉남 권사 특별헌금

우리 교회에 시무중인 이봉남 권사가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다. 총 1억 5천만원을 헌금했는데 1억은 장학헌금으로, 1천만원은 건축헌금으로, 4천만원은 감사헌금의 명목이다.

연합 여전도회 전도세미나

일시 : 1995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충현교회 본당

강사 : 신성종 목사, 이한수 목사, 이건축 사모

우리 교회의 전 여전도회(하나,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가 연합으로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전도세미나를 가지며 전도에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 오는 5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게 될 이 세미나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예배설교를, 장년1부 지도인 이한수 목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의 전도사명"이란 제목으로, 이건축 사모가 "21세기 기독교여성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본당에서 열릴 본 세미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여성들이 모이는 자리이기에 전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5/19(금) 출국
· 신성종 목사님 : 5/15(월) 제2차 민족과 세계복음화 대회 발제강연
5/16(화) 여전도회 연합회 전도집회 개강예배 설교
5/20(토) 세계선교대회 발제
5/20(토) 대학생 미션2000대회 설교 통역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한 자들의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지켜주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세계선교대회를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접촉하여 열매맺게 하시고 예수사랑 큰잔치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인사이동 및 청빙

교회는 제9교구장과 소망부 부장으로 있는 이창호 장로가 해외장기 체류하게 됨에 따라 제9교구장에 강은원 장로를, 소망부 부장에 마성락 장로를 각각 임명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박용삼 장로가 시무장로직을 사임했다.

한편 조동1부 지도는 황정순 전도사에서 손미희 전도사로 변경됐다.

지휘자 · 오르가니스트로 새로 부임

가브리엘찬양대(1부) 지휘자로 이영조 선생이 새로 부임했다. 이 선생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동대학원, 독일 뮌헨국립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을 졸업(D. M. A)하고 동교에서 교수(작곡과장)로 있다가 한국종합예술학교, 국립음악원의 초빙을 받아 작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할렐루야찬양대(III부) 오르가니스트로 김옥련 선생이 부임했다. 김 선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피아노 전공), 목원대학교 음악대학(오르간 전공),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음악대학(오르간 전공, 석사 및 박사)을 졸업했다. 그동안 대구 서현교회, 서문교회의 오르가니스트, 대구 신학대학 오르간 강사, 미네소타 한인 복음감리교회 오르가니스트 및 지휘자를 역임했다.

장년1부 "부부생활 세미나"

교회학교 장년1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며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5월 27일(토) 오후 3시 선교관 지하 1층 만나홀에서 열리게 되는 이 세미나의 강사는 전주대학교 총장인 이중익 박사이며 강의 제목은 "부부생활의 위기 어디서 오는가"이다. 장년1부는 이 세미나를 위하여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부생활 전반에 걸친 설문조사를 하며 준비해 왔다.



가정세미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교회학교 새가정부에서는 가정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해에도 큰 호응을 얻었던 새가정부 세미나는 현재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교회내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진행 중이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은 송길원 목사(부산 새중앙교회 협동목사)의 "기쁨 넘치는 가정"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한다. 다음 주일(5월 21일)에는 현순원 전도사(상남교육원 원장)의 "성령충만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 한편 장년1부에서는 5월 27일(토)에 이중익 박사(전주대학교 총장)을 강사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연다. 제목은 "부부생활의 위기 어디서 오는가"이다. 이런 좋은 시간들을 잘 이용하여 가정에 관한 내적인 관심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야 하리라. (사진은 지난 주일 가정세미나에서 강의하는 김수지 교수)